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근)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외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목요일 저녁미사 후(대건회관)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40			



[제 1독서] 잠언 8,22-31
[화답송] 시편 8,4-5.6-7.8-9(◎ 2ㄱㄴ)
 ◎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 우러러 당신 손가락으로 빚으신 하늘하며,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나이다. 인간이 무엇이기애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애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
 ○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아래 두셨나이다 ◎
 ○ 저 모든 양 떼와 소 떼, 들짐승하며,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

[제 2독서] 로마 5,1-5
[복음 환호송] 묵시 1,8 참조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복음] 요한 16,12-15

성가	8시 미사 11시 미사	입당 81 입당 83	봉헌 210 봉헌 81 219	성체 178 성체 161 169	파견 247 파견 245
----	-----------------	----------------	---------------------	----------------------	------------------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삼위일체대축일(5월 26일)		그리스도의 성체성혈대축일(6월 2일)		연중 제10주일(6월 9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김글라라(순희)	이엘리사벳(자영)	이바로(명국)	조레지나(선덕)	김안토니오(휘)	허세실리아(홍숙)
제 1 독서	강요한(신호)	김길베르토(광호)	김안토니오(휘)	최다니엘(대연)	김안드레아(찬곤)	허라우렌시오(순구)
제 2 독서	정스텔라(애리)	전베로니카(진영)	김안젤라(영선)	서테레사(춘애)	김글라라(순희)	허파비올라(옥진)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오늘의 강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언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는 매우 단순한 기도이지만 이 기도 안에는 우리가 믿는 하느님에 관한 모든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시라는 신앙고백입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가 계시다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실상 삼위일체의 신비는 하느님 자신에 관한 신비이며,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느님 자신의 소중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신비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성상께서 **서로 나누시고 사귀시는 사랑입니다**. 끝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자부적인 사랑**, 온전히 의탁하는 **아들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완전히 **일치시키시는 성령의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이시지만 완전히 사랑으로 일치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 결국 삼위일체의 신비는 사랑의 신비입니다. 따라서 삼위일체의 신비는 오직 사랑만이 완전한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의 신비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하고 이루어 나가야 할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사랑과 일치, 봉사와 헌신의 삶을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미움과 분열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확인되는 하느님 사랑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 덕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기며**, 뿐만 아니라,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여졌기 때문입니다.**”(로마5,2-5참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된 우리는 모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내적으로 나누셨던 삼위일체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온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의 공동체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삼위일체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으로 일치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생명의 말씀

한 치과 의사가 평생 실천한 하느님 사랑

지난 5월 6일 서대문구의 한 허름한 치과에서 뜻 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34년 동안 전국을 돌며 수많은 한센인을 찾아가 무료로 진료를 한 이 병원의 원장님에게 한센인 대표들이 감사패를 전달하러 온 것입니다.

원장님의 이름은 강대건 라우렌시오입니다. 서울 대신학교에 다닌 신부님들과 신학생들은 ‘아~ 그 선생님’ 하실 것입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강 원장님에게 무료로 치료를 받았고, 형편이 어려운 신학생들에게 용돈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는 강 원장님께서 한센인들을 위해 봉사하신다는 이야기는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강 원장님은 한 사고 자신의 선행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고, 큰 상을 준다고 해도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묵묵히 그저 자신의 운명처럼, 평생을 한결같이 봉사만 했습니다. 딸들조차 병원이 너무 허름하여 친구들에게 여기가 우리 아빠 병원이라고 단 한 번도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강 원장님께서 봉사를 시작하신 계기는 아주 우연한 경험을 통해서였습니다. 어떤 병원에 갔는데 한센인 한 명이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돈을 집어 던지며 내쫓았습니다. “여기는 너 같은 문둥이가 오는 곳이 아니다. 병원 문 닫게 하려고 작정했냐!”

그때 힘없이 돌아서는 한센인의 뒷모습을 본 강 원장님은 한센인을 위한 봉사를 결심하고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오래 전에는 한센인들이 병원 진료는 엄두도 못냈을 뿐 아니라, 시내버스도 못 타고 잠잘 곳도 없어 공동묘지 옆에서 자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소외된 이들을 위한 강원장님의 열정은 34년 동안 식지 않았습니다. 훗시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쫓긴 한센인의 모습으로 강 원장님에게 다가오신 건 아닐까요.

강 원장님이 감사패 전달식에서 하신 말씀은 오랫동안 듣는 이의 가슴을 울립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대로 가슴으로 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봉사에서 얻은 기쁨과 보람이 커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봉사를 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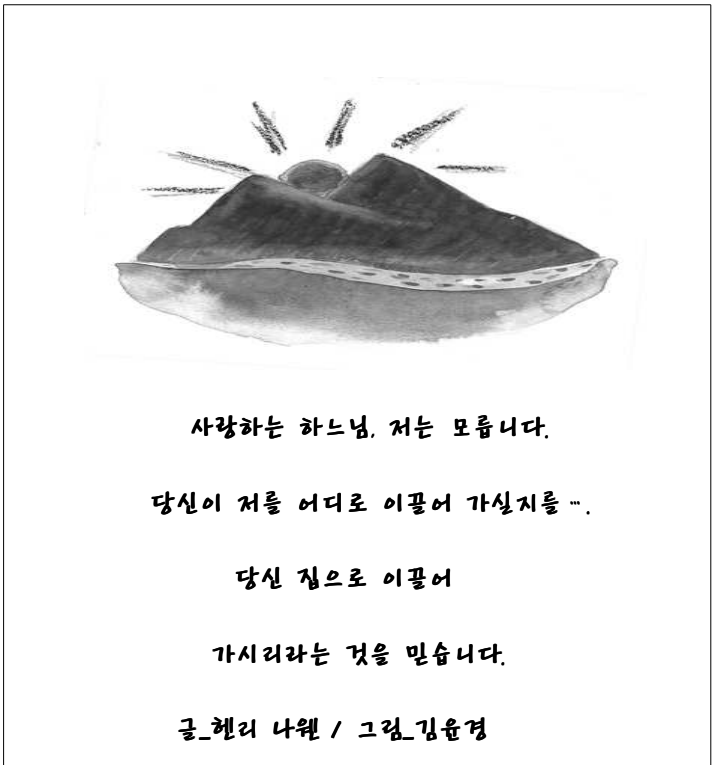
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요한16,13)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이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등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갈라 5,22-23 참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이라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습은 다름 아닌 사랑과 일치에 모범입니다. 사랑과 일치는 모든 생명의 원동력입니다. 사랑은 드러나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교리적이거나 이론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웃을 위해 봉사할 때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교구장 비서실 수석비서



말씀의 향기

꽃 중의 꽃, 사람 꽃

올봄에는 꽃구경 복이 터졌습니다.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닌 데 가는 곳마다 꽃 절정시기와 딱 맞아 유명한 봄꽃을 실컷 구경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셋노란 유채꽃을, 전라도 선운사에서는 피보다 붉은 동백꽃을, 진해에서는 등불처럼 환한 벚꽃을, 그리고 5월인 지금은 제가 가르치는 이화여대 교정에서 영산홍, 철쭉, 작약을 원 없이 즐기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노는 복’은 타고났나 봅니다.

그 꽃 사이를 깔깔거리며 짹짹 다니는 학생들은 꽃보다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꽃 중의 꽃은 역시 ‘사람꽃’입니다. 하지만 간혹 기죽어 있는 아이들을 보면 피다 만 꽃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학업이건 연애건 취직이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다며 새내기들을 ‘참 좋은 나이’라고 부러워합니다. 자기들은 이미 너무 늦었다면서요. 기가 막힙니다.

기껏해야 25살 남짓, 새싹처럼 새파란 나이에 늦었다니요? 그러나 이 학생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꿈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이대로 뒤흠치는 건 아닐까,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건 아닐까’ 하면서요.

‘실은 저의 20대도 그랬습니다. 친하던 여고 동창들은 원하던 대학에 가고 번듯한 직장도 다니는데, 대입에 실패한 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서너 가지의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하느라 하루에 20시간 이상 일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부족해서 하늘이 늘 노랗게 보였습니다. 죽을힘을 다해도 대학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하고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힘들지만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가면 반드시 길이 보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30대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꽃처럼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활짝 필 때가 있다는 걸 말입니다. 30대 중반, 저도 드디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에 피는 국화처럼 말이죠. 오지여행가로 시작해서 긴급구호팀장을 거쳐 지금은 UN자문위원으로, 대학교수로. 하고

싫은 일을 실컷 하면서 살고 있으니, 이게 바로 ‘나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우리 학생들처럼 다른 사람에 비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꽃마다 피는 계절이 다르듯 사람마다 ‘피는 때’가 다를 뿐입니다. 어떤 이는 개나리처럼 20대에, 어떤 이는 장미처럼 30대에, 또 어떤 이는 국화처럼 4, 50대에 활짝 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때가 올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 내공을 쌓고 있으면 됩니다.

교정 가득 눈부시게 피어있는 꽃들을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송이 꽃입니다. 크든 작든, 흔하든 귀하든 활짝 핀 꽃은 모두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꽃을 보고 감탄하며 기뻐하듯, 하느님께서도 재철에 활짝 핀 우리라는 꽃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며 좋아하실까요? 우리 모두 하느님이 준비하신 때가 오면 눈부시게 활짝 피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비아 비아
UN자문위원, 이대 초빙교수

머 무 림

무교한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덕규범 앞에서는

그 어떤 특권이나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윤리적 요구 앞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평등합니다.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57항 -

가톨릭전례

삼종기도(Angelus)

해질 무렵 일손을 멈추고 겸손하게 저녁 기도를 바치는 농부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밀레의 그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선 만종(晩鐘)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제목은 삼종기도(Angelus)입니다. 삼종(三鐘)은 종을 세 번 친다는 말입니다. 삼종기도는 하루 3번 일과를 멈추고 종소리를 들으며 기도를 하는 매우 역사가 오래된 기도입니다.

저녁 삼종기도는 6시쯤 바칩니다. 밀레의 장면은 해가 저무는(晩: 저물 만) 그 시간에 종소리를 들으며 기도드리는 모습입니다. Angelus(안젤루스)는 라틴어로 '천사' 라는 의미인데, 삼종기도의 라틴어 기도문이 이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Angelus Domini nuntiavit Mariae, Et concepit de Spiritu Santo(안젤루스 도미니 눈시아빗 마리아, 옛 콘체핏 데 스피리투 상또) 번역하면,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루카 1,28)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하느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으며,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루카1,38) 마리아의 신앙고백인 이 피앗(Fiat:그대로 '이루어지소서' 라는 의미의 라틴어 동사형)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태동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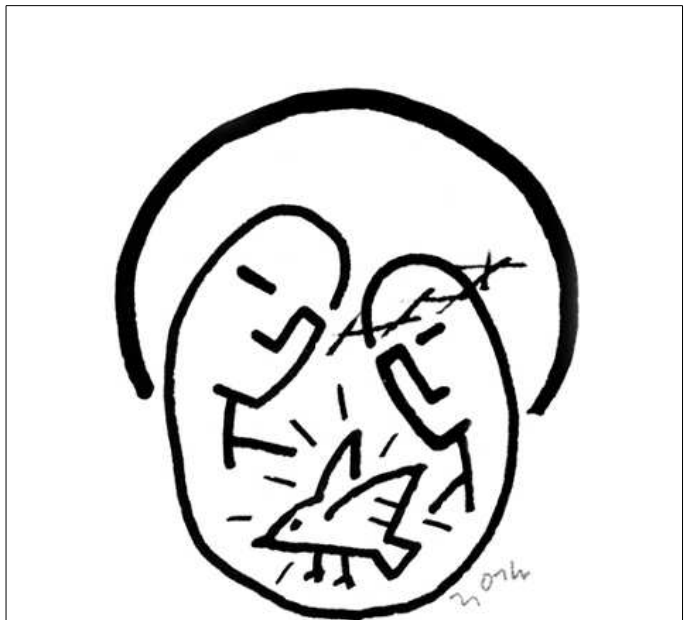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의 가운데 계시나이다.” (요한 1,14)바로소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삼종기도는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에게 알려준 예수님의 잉태와 강생의 신비(루카 1,26-37)를 기념하기 위하여 바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성모송을 바칩니다. 삼종기도는 해 돋을 무렵(하루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정오(잠시 쉬는 점심) 그리고 해질 무렵(하루 일을 바치는 저녁)에 바칩니다.

3분이 채 걸리지 않는 이 짧은 기도를 통해 구세주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시는 강생(降生)의 신비를 묵상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데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필리 2,7)

글 김지영 사무엘 신부 | 독산1동성당 주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2코린 13,13)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날짜	연	지 향	봉 헌 자
5월 26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마르코(재상)	김다윗(승우) 가족
	연	정아네스	가족
	연	임그레고리오(재선)	가족
	연	서라이문도	가족
	연	김아가다(복경)	김필립보 가족
	연	김아가다(복경)	김젼마
	연	박데레사(병순)	권바실리오(영현)
	연	소실베스타(철수)	권글라라
	연	김석순	가족
	연	김석순	10구역원
	생	성루카	김다윗(승우) 가족
	생	성루카	유요셉
	생	정로사(화봉)	익명
	생	홍안나(선자)	익명
5월 28일 화	연	최베드로(휘중)	가족
	연	서라이문도	가족
	생	성루카	이야고보/카타리나
	생	성루카	조마리아
5월 29일 수	연	부모님	이바오로
	연	서라이문도	가족
5월 30일 목	연	서라이문도	가족
5월 31일 금	연	형제/자매	이바오로
	연	서라이문도	가족
6월 1일 토	연	이베로니카	자녀들
	연	이마리아(수영)	이엘리사벳
	연	서라이문도	가족
	연	메체도안토니오/린	서데레사
	생	본당신부님	익명
	생	송토마스(성찬)	가족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82	246	-	328
헌 금	\$495	\$1,346	-	\$1,841

< 교무금 > \$3,445

권영현(5-6) 정일양(5) 팽현팔(5-6) 정창희(5)
정병구(5-6) 이정연(6) 조상희(5-6) 이병열(5)
정애리(3-4) 전덕천(5-6) 채성일(4-6) 김영자(5)
최용일(3-4)

< 성소후원금 > \$50

정병구(5-6) 정창희(5)

< Bishop's Appeal > \$70

정창희(5) 전덕천(1-6)

< 2차 헌금 > \$783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지난주	금 주	누 계
약정액	\$311,015.28	-	\$311,015.28
봉헌금	\$291,545.28	-	\$291,545.28

*약정자 : -

*금주봉헌자 : -

*총 230세대 중 185세대가 약정해 주셨습니다.

~~~~ 오늘 간식은 이정연 골롬바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지 사 양 -

◆ 전례안내

6월 1일 : 성모신심미사

◆ 꾸리아월례회 : 6월 8일(토) 아침미사 후

◆ 야외미사 안내

일시 : 6월 2일 교중미사

장소 : Joaquin Miller Park

- \* 차량 파손에 대비해 차에 귀중품을 놓고 내리지 마십시오.
- \* 8시 미사 있습니다.

◆ 장학기금 마련 Walkathon 행사 및 도네이션

\* Walkathon : 6월 2일 야외미사 전 오전 9시~10시 40분  
접수 : 천교실

◆ 예비자 교리반 모집

예비자 교리반(주일반)을 6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회의실
- 성경공부 : 매월 첫째주일/셋째주 금요일 저녁 7시반
- 기도모임 : 매주일 10시 ~ 10시 40분 1회의실
- \* 사목회의 : 5월 26일(오늘) 연도 후 107호실
- \* ME 모임 : 5월 26일(오늘) 연도 후 사제관 앞 회의실

◆ 북가주 꼬미시움 주관 레지오 교육 피정

일시 : 6월 1일(토) 오전 9시 - 오후 4시 반  
장소 : 오클랜드 성당  
대상 : 레지오 단원 및 협조단원, 일반신자  
강사 : 최경용 베드로 신부님  
\* 참가비 무료(중식 제공)

◆ 교중미사 중 남자 독서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 사무실

◆ 신앙의 해 성경가훈 책자를 위한 가족사진 촬영

\* 사진촬영을 못 하신 가정은 접수처로 사진을 가져  
오시거나 [schun3@netzero.com](mailto:schun3@netzero.com)로 보내주세요.(6월1일까지)

◆ 연도 안내

오늘 교중미사 후 김복경 아가다 자매님의 1주기  
연도가 있습니다.

5월 구역모임 **지에서 19 장**

|       |             |           |
|-------|-------------|-----------|
| 5 구역  | 5월26일(일)미사후 | 대건회관      |
| 7-2구역 | 5월26일(일)미사후 | 교육관 106호실 |
| 8-1구역 | 5월26일(일) 6시 | 이재우 야고보 덕 |

◆ 북가주 ME 25차 첫 주말

일시 : 7월 5일(금) ~ 7월 7일(일) 2박 3일

장소 : 산다미아노 피정센터(댄빌 소재)

문의 : 한치용 요셉/한현자 헬레나 415-810-3175

◆ 향심기도 피정

일시 : 7월 26일(금) 오후 6시 - 7월 28일(일) 오전 11시

장소 : Burlingame 에 있는 Mercy Center

참가비 : \$260(독방)

지도 : 서울교구 향심기도 사목담당 이승구 신부님

문의 : 김명환 안드레아 925-262-7094

◆ 한인크레딧유니온 안내

교육관에 위치한 한인크레딧유니온은 매 주일마다 오픈하  
며 다른 은행과 달리 월수수료가 없습니다. 이자가 적립  
되는 적금이 있으며 자동차 용자는 특별히 편리하게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북가주지점 : 2368 El Camino Real Santa Clara, CA

Tel : 408-260-0900

**주일학교 소식**

- \* 5월 26일 : 영어미사 없음(합동미사)
- \* 9월 8일 : 주일학교 개강

**안국학교 소식**

- \* 6월 1일 : 소풍
- \* 2013 ~ 2014년도 등록 안내
- 개강 : 2013년 9월 7일
- SAT II 한국어 시험반(8월부터 시작 예정)
- 수업료 : 5월말까지 등록 \$270(등록비 내는 날 기준)  
6월말까지 등록 \$285  
그 이후 등록 \$300
- 문의 : 정인경 가브리엘라 415-517-3544
- \* 기초반 교사 모집